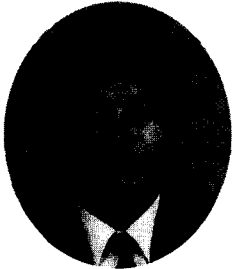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최명섭  
임업연구원

옛도인들은 큰 나무를 오랫동안 응시하면서 심기를 모아 번뇌를 잊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선(禪)의 불도수성 십각관수(佛道垂成 十却觀樹)에서 「관수(觀樹)」의 뜻은 나무를 골똥히 바라보는 좌선(坐禪)과도 통하는 것이다. 달마대사가 선의 깊은 뜻을 터득한 곳은 취생산의 소림사 면벽암(面壁庵)이란 암자였는데 여기에는 삼엽수라 불리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대사는 9년동안 면벽하면서 이 나무를 바라보며 도통의 길을 열었다고 한다. 피나무 역시 불가에서 『수성(樹聖)의 나무』로 아끼고 가꾸어 심는 나무 중의 하나다. 이 나무 열매로 염주를 만든다 하여 사찰에 흔히 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도승들이 일명 보리수(菩提樹)로 불리는 피나무를 관수(觀樹)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피 나무

과명 : 피나무과  
학명 : Tilia amurensis  
영명 : Amur Linden  
한명 : 毛皮木  
일명 : あむるしのき



식물들은 그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용도나 특성을 알 수 있다. 소태나무는 씹으면 소태처럼 쓰고 생강나무는 잎을 으깨보면 생

강냄새가 난다. 피나무는 인간의 혈관 속에 흐르는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섬유로 이용하여 고기 그물이나 노끈으

로 이용하거나 농기구의 끈으로 사용된 나무로서, 한자 피(皮)에서 유래되어 한자로 피목(皮木)이 되어 피나무로 부르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피나무를 단목(檀木)이라 하여 우리나라 지명에서도 단목령이라 부르는 고개가 있다.

피나무는 우리나라에 자라는 피나무 속(屬)에 속하는 종류만도 9종이나 되며 세계적으로는 약 30여종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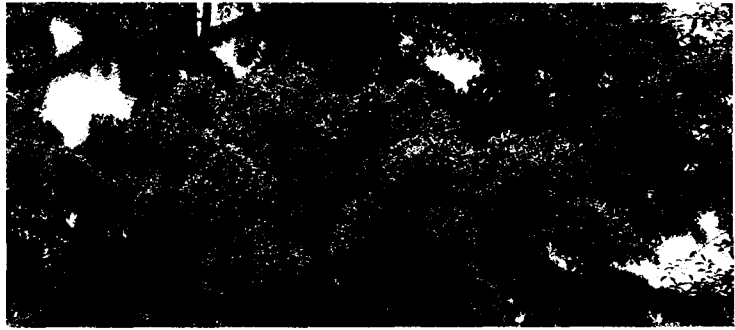
속명(屬名) Tilia는 보리자나무의 옛이름으로서 ptilon(날개)에서 유래되었으며 날개같은 포(苞)가 꽃자루에 붙어 있어 붙여졌다.

### 1. 생태적 특성

전국의 깊은 산 계곡이나 산허리 아래에 자라며 표고 100-1,400m에서 야생하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수고 20m, 직경 1m에 달하며 지리적으로는 중국, 만주, 몽고, 아르무에 분포한다. 내한성, 내음성, 내조성이 강하며 건조에 견디는 힘은 약하나 땅이 기름지고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는 왕성한 성장을 하며 참나무류, 다릅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등과 모여 산다.

### 2. 형태적 특성

수피는 회갈색이며 세로로 얇게 갈라지고, 어린 가지에 짧은 단모가 있거나 없다. 잎은 어긋나며 넓은 난형으로 끝이 갑자기 뾰족해지고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길이 3-9cm이다. 표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은 회녹색으로 맥액에 갈색 털이 밀생하고



잎자루는 길이 1.5-6cm이다. 꽃자루는 길이 5cm로서 털이 없고 꽃은 6월에 피며 지름 15mm로서 3-20개씩 달리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 1cm로서 털이 없다. 꽃자루 중앙부에 있는 포는 피침형 또는 도피침형이며 예두로서 길이 5cm이다. 열매는 원형 또는 도란형으로서 백색 또는 갈색 털이 밀생하며 9-10월에 익는다. 유사종으로는 평안피나무(var. grosseserrata), 연밭피나무(T. koreana), 뽕잎피나무(T. taquetii), 찰피나무(T. mandshurica), 웅기피나무(T. ovalis), 염주나무(T. megaphylla), 등근염주나무(for. subintegra), 개염주나무(T. semicostata), 보리자나무(T. miqueliana) 등이 자생한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서양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가로수나 공원수로 널리 피나무를 심어 왔다. 모가 나지 않은 수형과 심장모양의 커다란 초록 잎, 6-7월에 걸쳐 나무 전체를 덮는 연한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향기롭다. 게다가 빨리 자라고 전정이 자유로와 수형조절이 가능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강하여 훌륭한 조경수의 자격을 갖춘 나무로서 가로수나 공원수로 알맞은

나무이다.

피나무의 또다른 가치는 꽃이 피어 있는 동안 특유의 향기가 강렬하고 아카시나무, 밤나무, 싸리와 함께 밀원수목으로도 최고로 손꼽혀 우리나라에서는 꿀로, 프랑스에서는 차로 애용하고 있다.

### 4. 번식법

대개 종자번식을 하는데 피나무의 묘목을 많이 키우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종자 결실에도 빈종자가 많고 후숙하는 기간이 길며 이중 휴면성이 있어 발아하는데 2-3년씩 걸리는 힘든 나무이다.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2년동안 노천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채취 즉시 파종하면 발아하지만 발아율은 매우 낮다. 피나무 종자의 순량율은 88%이며 kg당 입수는 50,761개 정도이고 발아율은 32%정도이다.

### 5. 그 밖의 용도

목재는 일반적으로 황색을 띤 백색이며 가볍고 연하나 재질은 치밀하며 쪼개기 쉽고 가공이 용이하며 탄력성이 좋아 기구재, 조각재, 바둑판, 상, 펄프재 등에 쓰이며 껍질은 로프제조 등 섬유자원이다. 꽃에는 많은 밀원이 있어 꿀을 생산할 수 있다.